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28일(수)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 • 기후지진팀장 박민영 ☎440-3366 • 담당자 이숙이 ☎440-3359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폭염 예방대책 추진에 총력전

-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 검사대기자 생수 및 냉동고·냉장고 지원 -
- 살수차 운영 및 노령 층 대상 냉방물품 지원, 경로당·공원 등 무더위쉼터 개방 -
-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다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냉방물품을 추가 지원하고, 임시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대기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생수 및 냉동고·냉장고를 제공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검사대기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8곳과 선별진료소 9곳에 생수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시원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고와 냉장고를 설치했다. 검사대기자 생수 지원은 검사대기자 수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폭염경보 발령 시 운영을 단축시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4시는 운영을 중단해 근무자 및 검사대기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쿨매트 등의 냉방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5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군·구 수요를 파악 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등과 협조해 주안역 임시선별검사소 등 10개의 임시선별검사소, 9개의 선별진료소 대기 장소 주변에 살수 작업을 진행한다. 펌프차와 살수차를 활용해 1일 2회 물을 뿌린다. 폭염으로 데워진 땅에 물을 뿌리면 기화열로 인해 주변 온도가 내려가, 검사대기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폐쇄됐던 실내 및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개방을 추진한다.

시는 백신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315개소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및 방역물품을 비치하는 등의 방역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됐던 76개소의 공원, 정자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해 재개방을 추진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야외 무더위쉼터 159개소를 개방하면서 12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더위쉼터의 주말, 공휴일 개방을 군·구와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폭염과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를 부착하고, 출입 시 발열체크와 QR확인, 손소독제 비치, 간격을 둔 의자 배치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무더위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해 이른 폭염이 찾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된다” 며 “코로나19를 고려한 폭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